

“전북교육 도약 위해 노력 지속할 것”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3기 취임 1년 소회 밝혀

3기 취임 1주년을 앞둔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도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쁘게 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년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 작년 하반기 교육정책 평가에서도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목적사업비 배분 방식 개선을 통해 단위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학교가 추진하고 있거나 확신이 필요한 정책사업이나 대상학교가 이미 선정돼 있고, 일정 기간 변경이 없는 사업비는 학교기분연염비에 총액으로 배분해서 학교의 자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놀이공간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은 올해 17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51개교에 56억 1000여만원이 투입된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에게는 놀이공간 배움이 성장이다. 이 사업은 놀이공간 선정에서부터 기획, 놀이터 이름 짓기까지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참여로 이뤄진다”면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구축, 동남부권 수확체험센터설립, 교육박물관 설립 등 ‘체험형 교육환경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각각 정읍·남원·군산에 들어설 이들 시설은 지역균형교육과 함께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시대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도 이어오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16개 발명교육센터 내에 구축하는 미래창작공방은 3D프린터·UV프린터·CNC조각기·레이저커팅기 등을 갖추고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내는 메이커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8개소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8개소가 구축 완료 예정이다.

또 김 교육감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학교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혁신학교 교육주체들의 성장사태를 추적 연구해 혁신학교 정책이 전북교육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진단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사학재단 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밝혔다. 최근 불거진 안산학원문제와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목적사업비 배분 방식 개선을 통해 단위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현행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육보호법이 아니라 소유자보호법이 되고 있다”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과 행정직원 공개채용, 법인 임원선임 제한과 결격사유 확대, 징계 의결·집행권한 도교육청으로 이양 등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현행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육보호법이 아니라 소유자보호법이 되고 있다”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과 행정직원 공개채용, 법인 임원선임 제한과 결격사유 확대, 징계 의결·집행권한 도교육청으로 이양 등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나폴리서 한국 체육의 저력을!

전북 선수 5명,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

전북 체육을 빛내고 있는 5명의 선수들이 제30회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 한국 체육의 저력을 보여준다.

24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제30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전북 선수(출신) 5명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수영의 김혜진(전라북도체육회)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 사냥에 나서고, 양궁의 김정민(장신대)도 금빛 화살을 쏠 예정이다.

최근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펜싱의 정한길(호원대)과 고예인(호원대)도 이번 대회에서 한국 펜싱의 매서움을 보여줄 예정이다.

군산 출신인 송진(경기도청)도 수중 핸드볼로 불리는 수구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또 축구의 한종원(전주대 코치)과 펜싱의 최도선(호원대 코치)도 입원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게 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제 실력을 보여준다면 메달 획득도 어렵지 않겠다”며, “전북 체육 더 나아가 한국 체육의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0회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결단식은 오는 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동초, 학교폭력중재 역량강화 '주민로스쿨' 운영

전주동초등학교(교장 김정희)는 지역민, 학부모,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중재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로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로스쿨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속 법률강의를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소년원 방문, 문화체험 등으로 기획돼 있다.

소년 및 가사사건 분야의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대표변호사의 강연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이수생에게는 향후 지역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노송골 주민로스쿨 교육생 모집안내

건문가와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상식 교육

교육수료 후 학교폭력예방 및 중재에 관심 있는 분 (초·중·고)

학교폭력 예방? 학교 폭력사건 발생시 대처 방법? 피해자의 응급처치 방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법률 상식

장 소: 전주 동초등학교

운영대상: 본교 학부모, 노송골 지역민, 본교 졸업생 중 희망하시는 분

강 사: 전주동초등학교 자원봉사자 겸 법률사무소 지청 대표변호사 김도현

신청방법

전주동초등학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여 신청

신청기간: 6월 25일(화) ~ 6월 28일(금)

신청처: 노송골 주민로스쿨 운영팀 (02-328-4394) | 교문 크로스로드 2층

구분	일자	강연시간	강연주제
7차(1)	7월 1일	15:00~17:00(2시간)	총체질, 민사, 형사, 가사소송 절차에서의 조정
		17:30~19:00(1.5시간)	학교폭력 예방의 책임,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
노송골 로스쿨 7차(2)	7월 2일	15:00~17:00(2시간)	가사소송 절차에서의 조정, 민사, 형사, 가사소송 절차에서의 조정
		17:30~19:00(1.5시간)	학사 문제, 실용, 실용, 실용(사회의 역할)
7월 8일	월	15:00~17:00(2시간)	민간 중재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법률 상식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

전북대, 오늘 창업페스티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창업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전북지식재산 창업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전북대 구정문 앞의 거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 및 공연, 부대행사, 지식재산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도 글로벌 우수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글로벌IP스타기업 홍보관을 비롯해 지역 우수기업 홍보관, 청년 CEO들의 아이디어 제품의 시장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리마켓 등이 진행된다.

또한 4차 산업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하고 기발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 명사 초빙 특강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참여로 지식재산 상생 분위기 조성 및 시민 축제의 장 마련하여 행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전북 지식재산 창업페스티벌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창업과 지식재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자유롭고 진취적인 창업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지난 21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학기행을 실시했다.

문학기행으로 학부모 인문학감수성 키운다

도교육청, 다양한 학부모교육 지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 학부모지원센터는 지난 21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학기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녀 이해와 공감능력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만족도 100%를 기록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시집 쓰기' '다! 축하! 와, '최명희의 '혼불' '사각사각 디딤돌'은 해마다 학부모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문학기행은 박태건 시인, 최기우 극작가와 함께 시집 글쓰기·혼불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김계·부안 지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김계 아리랑문학관, 아리랑문화마을, 부안 석정문학관 등을 직접 체험하며 문학작품에 녹아있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탐구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 수탈의 역사를 다룬 조정래의 '아리랑'과 목가시인 신석영의 전원시 배경이 우리 지역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이 문학을 통해 역사인식을 높이고 문화감수성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교육청 장본이 학부모지원센터는 “문학기행을 통해 학부모들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예술적 감각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학작품 속에 녹아 있는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삶을 통해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